

1-1

(가)	(나)	(다)
소문의 생성과 확산은 대중	소문의 생성과 확산은 대중	소문의 생성과 확산은 대중 + 각종 매체(신문, 뉴스 기사 등)
소문의 내용이 새롭고 특이 할수록 잘 확산됨 (소문의 새로움, 특이함이 소문의 생성/확산에 영향)	대중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고,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가 적을 때에 잘 확산됨 (대중들의 문제 상황 인식 정도, 문제에 대한 정보의 수가 소문의 생성/확산에 영향)	대중들의 호기심과 기대를 잘 충족시켜줄 수 있을 때 잘 확산됨. (소문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과 기대의 충족 정도가 소문의 생성/확산에 영향)
소문의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음 -> 개개인의 사건에 대한 인상은 다르기 때문, 이는 어쩔 수 없는 인간사의 이치.	소문은 사건에 대한 대중들의 해석을 담으며,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짐.	소문은 대부분 한담에 불과하며, 진실을 가리는 장막으로 작용됨. =>소문은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으며, 거짓에 가까울 수도(?)
따라서 소문은 허술한 지식이며, 과학처럼 확실한 지식의 발전엔 영향을 끼칠 수 없음	이렇게 만들어지는 소문은 기존 지식의 파괴 이후, 지식 재구성 단계에서 큰 단서가 되기도 함.	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소문을 넘어서서, 진실을 바라보려는 태도가 중요함.
소문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. (굳이 말하자면 부정적이지는 않음에 가까움.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.) -> 소문의 생성과 확산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받아들이지만, 허술한 지식이라면서 비판하기도 하기에.	소문에 대해서 긍정적	소문에 대해서 부정적

1-2

[보기 A](맞나?)를 통해 (가)를 논하기

소문이 생성되는 것은 개개인의 불완전한 지각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은 [보기 A]의 내용과 일치합니다. 또한, 그것의 진위 여부를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것도 일치하구요.

하지만, 진위 여부를 떠나서, [보기 A]에서는 이런 불완전한 지각을 통한 정보들이라도 조건적인 단서들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합니다. 과학의 발전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(가)에서는 이런 지각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소문은 과학과 같은 지식에는 활용할 수 없는 허술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. 과학도 일종의 불완전한 지각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식이고, 소문도 불완전한 지각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지식이지만, 둘을 완전히 분리/구분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(가)는 모순이 발생해버립니다. 이런 식이면 제시문 (가)가 상대적으로 참이라고 생각하는 과학도 소문과 발생 과정이 유사한 불완전한 지식이니깐요.

[보기 A]를 통해 (다)를 논하기

소문이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견해는 [보기 A], (다)와 일치할 것입니다. 수용자들도 두려움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의 영역에서 소문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. 그것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선 어느정도 인정할 것입니다.

하지만, (다)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전부 배제하고, 개인의 순수한 이성적 통찰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길 요구합니다. 하지만, [보기 A]에 따르면 이런 행동은 불가능합니다. 지각 활동은 불완전한 것이며, 그걸 통해 만들어지는 정보들도 조건적인 단서일 뿐, 완벽한 참이라고 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. (다)가 추구하려는 진실도, 사실은 조건적인 단서로 완성되는 것일 뿐, 완벽한 진리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서는, (다)가 추구하려는 진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개인의 진실을 통한 탐구도 방향성을 잃게 될 것이구요.

2-1

(라) 분석

(라)의 그래프는 소문이 속한 범주의 중요도가 아주 높거나, 아주 높을 때, 그리고 새로운 소문일수록 더 잘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기존에 존재하는 소문들은 크게 확산되지 못하며, 범주의 중요도가 중간인 것들은 양 극단의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경우보다 확산되지 못합니다.

(라) -> (나)

(나)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 때에 소문의 생성/확산이 활발하다는 내용은 (라)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, 기존의 정보가 많이 존재하지 않은, 새로운 소문일수록, 더 잘 확산된다는 것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(라)의 새로운 소문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소문들보다 더 잘 확산된다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죠.

그러나,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소문들도 생성/확산이 활발하다는 것을 (라)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(라)의 그래프는 범주의 중요도가 아주 낮은 소문들도 아주 높은 소문들 만큼 잘 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. 즉, 제시문 (나)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와 소문의 생성/확산 정도는 항상 양의 상관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 반박됩니다.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가 아주 낮은 소문들도 잘 확산되니까요.

(라) -> (다)

(다)의 소문이 대중들의 호기심이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한담에 가깝다는 내용과 (라)의 실험 결과는 어느정도 일치합니다. 범주의 중요도가 낮은, 막연한 두려움이나 시시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문들의 확산 정도가 높으니까요. 또한, 새로운 소문들이 잘 퍼진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(라)의 실험 결과와 일치합니다.

하지만, 모든 소문들이 (다)의 평가처럼 한담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. (라)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보면, 범주의 중요도가 높은 소문들은 아주 잘 퍼지는데, 이러한 소문들을 단순한 즐거움이나 두려움을 겪기 위해 생성/확산시키는 것이라곤 볼 수 없으니까요. 이 점에서는 (다)의 소문에 대한 평가도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.

2-2

참인 소문과 거짓인 소문들은 각각 퍼지는 양상이 다릅니다.

참인 소문은 100-400명 규모까지는 퍼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. 이후 1300명까지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고요.

거짓인 소문은 100-900명까지 서서히 증가합니다. 다만, 1000-1100명 구간에선 급격히 감소했다가 1200명 이상의 집단에선 확률이 0이죠. 이젠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다.

이걸 가지고 (가)를 본다면, 소문이 새로울 수록 잘 퍼진다는 내용은 타당합니다. 참이든 거짓이든 아는 사람이 적고 확산된 수가 적을 때에, 즉, 새로운 소문일 때에 쉽게 퍼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다만, (가)에서 소문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건 타당하지 않습니다. 개개인의 수준에서는 사건에 대한 인상이 다르기 때문에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었지만, 거짓인 소문의 경우에는 1200명 이상의 집단에서는 확산되지 않습니다. 즉, 소문의 진위 여부는 1200명 이상의 집단 수준에서는 알 수 있다는 거죠. 이를 두고 집단 지성의 발현을 통해 거짓 소문에 대한 자정 작용이 발생한다고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.

코드킴의 인문논술 자료